



아라시야마(교토)

인사

저희 이코이노아루교회는 창립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스즈카땅에서 영혼구원을 맛보며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5년이 지나고 개척교회의 풋풋함과 신선함은 점차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척시 예배실 바닥에 깔았던 타일카펫에서는 더이상 산뜻한 향기가 아닌 청년들의 발냄새가 묻어납니다. 선명하고 뚜렷했던 교회 간판도 색이 점점바래 흐릿해졌습니다. 전자기기들도 하나둘씩 고장이나거나 말썽을 피웁니다. 최근에는 냉장고가 고장이났고 인덕션도 누전으로 못쓰게 되어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남자화장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세어들어오고, 책방 바닥은 넘쳐난 하수로 흥건히 젖어 장판을 전체로 교체해야합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 개척교회의 특권인 “새로움”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개척초기를 지나 이제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맺기를 넘어 영혼구원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어가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해주세요.

교회창립5주년/강연회/선교대회

10월둘째주일에는 이코이노아루교회 창립5주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동경기독교대학 전학장님이신 야마구치요이치(山口陽一)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일본기독교사의 대가이자 대학원의 논문지도 은사이십니다. 언젠가 꼭 한번은 모시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셨지만 은혜로 모실 수 있



야마구치목사님 강연회



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목장모임에 참석해주셨고, 주일오전예배 설교, 오후에는 특별강연회를 통해 미에현을 중심으로 본 일본기독교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순교당한 26명의 모습을 조각해놓은 기념상이 있는데 그 중 미에현 출신이 9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천국의 영원을 행복을 잃지 않

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14세 소년도 있었습니다. 메마른 줄 알았던 이 곳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믿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강연회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간을 헌신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츠히토형제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님은 트럭운전사이신데 혼다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실어 나르는 일이라



미니버스 타고 캠프장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이어도 절대로 쉬지 않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휴가를 내면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직장이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보도록 권면했고 용기를 내서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 2주전, 혼다본사에서 공장을 갑자기 하루를 쉬겠다는 공지를 내렸고, 이에따라 모든 트럭도 운행을 하지 않고 휴일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선교대



이코이가족 특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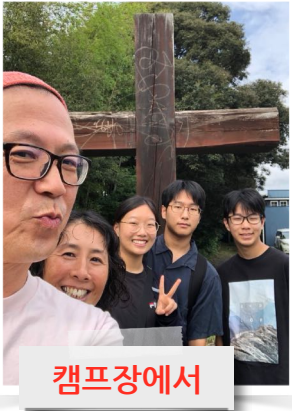
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뜨겁게 간증한 최고의 선교대회였습니다.

바쿠산 찬양집회

지난 10월첫째토요일에는 하마나코캠프장에서 바쿠



바쿠산찬양



산 찬양집회가 열렸습니다. 바쿠산(爆賛)은 폭발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개념의 모임입니다. 아침부터 모여 오후까지 찬양이 이어집니다. 저는 음향과 영상봉사로 섬기고 교회에서도 5명이 참가하여 교파를 넘어 남녀노소 140여명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있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캐러번전도팀

일본교단이 추진하는 전도팀이 방문했습니다. 2년만에 맞이하는 캐러번팀인데 인원은 2명으로 적어 아쉬웠지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참하여 교회에 근접한 2곳의 주택단지에 약



1800장의 교회안내지와 전도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맺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가정 이야기

장남 인하는 지난 10월에 한국에 있는 대학입시 실기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다립니다. 인하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앞으로의 계획(2024년11-12월)

- 11/10 생명의삶7기수료식 ○11/13 도쿄선교구 선교의밤 설교&선교보고
- 11/18,19,25,26 온라인 가정교회 삶공부 ○11/28 개척교회목사연수회
- 11/24 특별감사예배&성탄장식 ○12/3 IT위원회 ○12/3복세목사회 ○12/22 성탄예배/성탄행사

함께 기도해주실 기도제목(2024년11-12월)

1. 전,유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르게 가도록
2. 이코이노아루교회가 지역사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3. 신앙고백한 청년들(히카루,타무라)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예배를 사모하도록
4.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여 이웃을 섬기는 이코이노아루교회 공동체 되도록
5. 관계맺고 있는 미신자 어머니들(아야카,유키,자자,타카에,나나,쇼코,유우키,미나코,미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주시도록
6. 12/22성탄행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7. 교회 건물과 부지 취득을 위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때가 이를 때까지 소망을 품고 깨어 기도하도록
8. 인하, 하나, 나다, 다예가 매일의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인하가 대학입시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연락처 안내

kakaoid	jeons4japan
핸드폰(일본)	(81)80-6595-9511
E-mail	kojanary@gmail.com